민주 4명 경쟁 치열…결선투표 가능성

여수시장

권오봉·전창곤·강화수·정기명 경선
국힘 신용운·무소속 임영찬 후보 등록

강화수

권오봉

전창곤

정기명

신용운

임영찬

여수시장 지방선거는 더불어민주당 권오봉 현 여수시장과 전창곤 여수시의회 의장, 강화수 전 청와대 행정관, 정기명 전 여수시청 고문변호사가 당내 경선을 앞두고 있다. 특히 민주당 경선은 1차 경선 과반 득표가 없을 시 상위 1~2위가 치르는 결선투표가 여수시장 선거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권 시장은 "임기동안 2조원이 넘는 역대 최고 규모의 국비 확보를 통해 시 전반에 걸쳐 다양한 사업이 전개될 수 있게 만들어 왔다"면서 "민선7기 진행되던 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진정한 삼여통합을 위한 권역별 발전계획 등이 우리지역의 핵심과제다"고 강조했다. 재임기간 동안 여순사건 기념공원 조성, 여수시립박물관 설립, 2026세계섬박람회 추진 등 사업들을 추진했다.

전 의장은 "12년간 의정활동을 통해 합리적인 리더십과 성실하고 깨끗한 정치인으로서 평가받고 있다"며 "20년 지역 정치를 통해 지역과 시민을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지금까지 지역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지역을 지켜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강 전 청와대 행정관은 "여수시의 도심과 외곽에 각각 신도시를 건설함으로써 여수시의 고질적인 문제인 인구 유출 문제, 주택난 문제, 원도심 활성화 문제, 관광산업 문제, 일자리 문제 등을 해결하겠다"면서 "이에 여수시의 인구를 35만여 명까지 끌어올려 전남 최고의 도시로 재도약 시키겠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시민을 직접 만나면서 소통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정책을 펴겠다"면서 "각 지역의 목소리를 적극 행정을 통해 실현하는 시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신용운 영수시민포럼 정책연구소장과 무소속 임영찬 한국해양문화관광산업연구원 원장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선에 대비하고 있다. 신 소장은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선거 전남선거 대책위원회 전략·기획본부장을 지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민주 당내 경선 팽팽…재심 결과 주목

순천시장

허석·장만채·오하근·손훈모 경쟁
이영준 무소속 예비후보도 출마 준비

손훈모

오하근

장만채

허석

이영준

순천시장 선거는 현 허석 시장을 비롯해 장만채 전 전남교육감, 오하근 전남도의원, 손훈모 변호사 등이 치열한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을 치르고 있다. 또 무소속 이영준 예비후보가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민주당 주자 간 당내 경쟁이 팽팽하고, 공천 과정에 배제된 일부 후보가 재심을 신청해 이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허 시장은 지난 4년간 이룬 성과를 바탕으로 새 순천의 완성과 이를 위해 준비 중인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개최를 강조하고 있다. 그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유치, 순천만 갯벌의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 등재, 시민 숙원이던 시청 청사 건립, 다양한 제도 도입으로 직접민주주의 가치 실현 등은 호평받고 있다.

장만채 전 전남교육감은 순천대 총장과 전남도 교육감직을 수행하면서 인지도를 높였다. 장 전 교육감은 대규모 어린이랜드 유치, 펫 테마파크 조성, 순천형 공공 IT 플랫폼 개발 등을 주요 공약을 발표했다.

오하근 도의원은 '시민의 삶을 바꾸는 유능한 경제시장'이라는 구호를 걸고 도전장을 냈다. 젊은 정치를 무기로 미래 순천을 위한 지도력을 발휘할 계획이다. 광양경제청조합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모두가 행복한 대동 세상 구현이 목표다. 그는 1조 관광경제 인프라 구축, 1000병상 '대형 종합병원' 유치, 스포츠 전지훈련 메카 도시 구현 등을 공약을 발표하고 표밭을 다지고 있다.

손훈모변호사는 공공 임대아파트 분양 관련 소송과 인권을 우선 챙기며 이름을 알렸다. 조직력과 지지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공천을 앞두고 낙점 가능한 몇 안 되는 후보에 포함되고 있다. 인권 활동으로 다져진 깨끗하고 소신 있는 이미지가 돋보인다. 손 변호사는 2030년 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인프라 구축, 시민과 소통하는 시장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놓았다.

무소속 이영준 예비후보는 순천시 중앙동 주민자치위원장, 중앙동 바르게살기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이름을 알리고 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경선이 본선…여성이냐 현직이냐 촉각

함평군수

민주 김경자·이상익 경선 결정
국힘 김유성·무소속 윤석규 출마

김경자

이상익

김유성

윤석규

함평군수 선거는 초반부터 입지자들이 대거 몰리는가 하면, 군수 사돈 폭행 사건 등으로 조기 과열되는 분위기였지만 민주당 공천 심사를 거치며 다소 누그러진 상황이다.

민주당은 공천 심사 과정에서 경선 대상자로 김경자 전남도의원과 이상익 현 함평군수를 결정했다. 이들 간 경선을 거쳐 함평군수 후보자를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경선이 사실상 본선이나 다름없는 셈이다. 하지만, 경선 후보로 탈락한 일부 인사들이 '컷오프'에 반발해 재심을 신청해 놓은 상태여서 재심 결과가 주목된다..

김경자 전남도의원은 도의회 청년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아 의정활동을 한 경력을 바탕으로 젊은 정치, 섬세한 정치를 펼쳐 자력으로 최초의 전남지역 여성 자치단체장에 오르겠다는 포부다. 현재 민주당 전남도당의 기초단체장 후보자들 중 여성 비율은 고작 2.9%에 불과한 만큼 김 의원의 단체장 당선 여부도 관전 포인트다. 이미 조성된 빛그린 산단 주변으로 자동차부품업체 등을 유치해 산단 기능을 확대할 경우 3만명의 소도시를 20만 국가산단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게 그의 비전이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현직 프리미엄을 업고 "'중단없는 발전'을 통한 탄탄한 함평을 만드는 일에 도전하겠다"며 재선 출마를 선언했다. 이 군수는 "2년 만에 예산 5000억원 시대 조기 달성으로 산업생태계를 바꿔 빛그린산단 일대에 자동차부품 기업들이 몰려들고 있다"며 "더 발전하는 함평을 만들기 위한 6대 분야 핵심비전을 실현해 더 큰 발전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군수 관사를 평생학습관으로 탈바꿈시키고 군수 급여를 전액 장학금으로 기부, 학비 걱정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은 지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정책으로 꼽았다.

1998년부터 3선 군수를 역임했던 이석형 전 함평군수는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컷오프됐다. 그는 "특정 계파 정치인을 (본선) 링에 올리기 위해 유력한 후보인 나를 배제했다"며 "중앙당의 재심을 통해 바로잡을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어떻게 진행될 지는 미지수다.

김유성 전 경찰공무원이 국민의 힘 후보로 군수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고 윤석규 전 외교관은 무소속으로 군수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선거운동에 나섰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민주 3인 경선…현 군수 4선 여부 주목

신안군수

김행원·박석배·박우량 출마 나서
민주 공천 후보 무소속 고봉기와 본선

김행원

박석배

박우량

고봉기

민주당 신안군수 후보 공천 경쟁은 김행원 신안군 신해양발전위원장, 박석배 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상임감사, 박우량 현 신안군수 등 3명이 나섰다.

하지만 신안지역 최대 관심사는 박우량 현 군수의 행보다.

아직, 예비후보로 등록하진 않았지만 박우량 군수는 '가고싶은 섬' 뿐 아니라 '살고 싶은 섬'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4년이 더 필요하다며 출마 입장을 밝힌 상태다. 출마를 공식화한 만큼 강력한 후보로 꼽힌다. 눈길을 끄는 정책들도 많아 신안군민의 지지도 상당하다. 섬을 온통 보랏빛으로 물들인 '퍼플섬'은 외신과 SNS를 통해 '핫플레이스'로 떠올랐고 해상풍력발전의 이익을 주민들도 받을 수 있도록 한 정책도 주민 지지로 이어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민선 4기와 5기, 7기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저력을 보여준 만큼 이번 선거에 '텃밭'인 민주당 옷을 입고 나온 만큼 독주도 전망되는 상황이다.

다만, 기간제공무원 특혜성 채용에 관여하고 수사기관 압수수색 과정에서 서류를 훼손한 혐의로 오는 5월 1심 선고 재판을 앞두고 있는 점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 꼽힌다.

김행원 신해양발전위원장은 최근 출마를 선언하며 "신안은 계속된 장기집권으로 군민들의 피로감이 쌓여있고 특혜를 누리는 일부 기득권층의 득세로 주민간 불화가 깊어지는 등 갈등구도가 형성됐다"면서 "'반칙과 특권, 차별'이 없는, 모두가 함께 살고 싶은 고장, 새로운 신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공정한 인사스시템 정착, 낭비성사업 재검토 등 30여년 목포시에서 공직 생활을 한 경력을 토대로 신안의 장기발전 비전을 실현하겠다는 각오다.

박석배 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상임감사는 신안군수 선거에 세번째 도전장을 냈다. 그만큼 신안 주민 정서에도 밝다는 게 자평이다. 관광·농수산업·복지 등에 초점을 맞춘 공약으로 어필하고 있는 그는 "대형리조트와 콘도·호텔 등을 유치, 머물렀다 가는 체류형 관광지로 500만 관광객 시대를 열어 군민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일부 후보가 민주당 공천 심사에 불복, 일부 후보가 재심을 신청해 수용 여부는 공천 경쟁의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공천을 따낸 후보는 무소속 고봉기 후보와 본선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김지을·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